

“전남지역 의대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령인구 많지만 의료 인력·장비·시설 열악 ... 타 시·도서 치료 받아
지난해 의사회 집단 휴진으로 미뤄져 ... 전남도, 용역 착수 등 총력전

#화순중앙병원(2018년)과 순천병원(2020년)은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다. 영암은 지난해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어 보건소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일부 군 단위 병원들도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전남도내 목포·순천·강진 등 3곳의 공공의료원에 필요한 의사정원은 51명이지만 현재 의사 인력은 36명뿐이다.

#매년 80만여 전남도민은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시·도의 상급 종합병원에 가고 있다. 이들이 쓰는 의료비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국 최고 규모다. 본인만이 아니라 간병, 간호 등을 위해 가족까지 해당 지역으로 가야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가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진척이 없는 '전남지역 의과 신설'을 위해 도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까지 언급하며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의료 인력·장비·시설이 열악해 도민들이 제 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의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의료비 가중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남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1일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정부에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신설은 전남의 30년 숙원으로

지난해 7월 정부-여당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회 반발과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남 의대 신설을 수차례 약속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사임, 코로나 19 사태 지속, 내년 대선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 등에 자칫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지역 최대 현안이 정부의 논의 주제를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도내에 의과대학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20일 시민단체가 주최해 서울에서 열리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곳(정원 3058명)에 달하지만, 전남에만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부설 대학병원이 없다는 점, 그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 불균형과 의료비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민의 기대수명은 80.7세로 17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가장 낮으며, 최고인 서울(83.3세)과 2.6년차다. 1인당 의료비 역시 241만원으로 전국 1위이며, 최저인 경기(161만7000원)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의 의료인력·시설·장비가 특정지역에만 집중돼 있으며, 전남은 그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광주시, 157건 적발

광주 자치단체 합동 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30세 미만인 수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많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3월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57건을 적발했다.

앞서 시와 자치구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을 정밀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의심 사례 390건, 미성년자·30세 미만·외지인 등 거래 관련 330건이었다.

거래 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720건 가운데 157건(21.8%)에서 불법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12건, 서구 35건, 남구 23건, 북구 24건, 광산구 63건이었다. 시는 경찰 수사 의뢰(19건), 국제정보(100건), 과태료 부과(13건), 행정제재(25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공금 질서 교란, 중개수수료 초과 등으로 주택법,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세 의심 사례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 편법 증여(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44건)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했다 적발된 사례는 3건이었고, 30세 미만이 3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도 59건이나 됐다.

시는 정밀조사 기간 중 신고한 사례에는 행정 제재하고 정밀 조사 기간 계약일 허위신고, 저가 신고, 명의신탁 등을 가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00안타 최형우, 최다 타점 범본다 ▶18면
신 팔도명물 - 자연의 선물 곡성 멜론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광주 코로나19 대 확산 우려

장소·연령·감염 경로 다양
이틀 간격 두 자릿수 확진

그동안 소강세를 보였던 광주 곳곳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2명, 담양 지인 모임 관련 1명, 서울 확진자와 접촉 1명, 전남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4일, 7일, 10일 0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15일 11명을 시작으로 16일 4명, 17일 11명, 19일 4명, 20일 17명 등 이틀 간격으로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광주 누적 28명) 발생이 주춤해진 점은 다행이지만, 남구 봉선동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6명과 교사 3명, 교사 가족 1명 등이 잇따라 감염되는 등 장소나 연령, 감염 경로 등이 다양해지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확진된 교사 1명이 지난 18일 대형 교회에 장시간 머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인 등 700여명을 검사하고 있다. 봉선동은 광주를 대표하는 학원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원들은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구



21일 광주 남구 봉선동 거주교회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8일 이 교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책을 마련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특성상 언제 어디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대학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교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강의를 들은 학생 등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대학 측은 교내 방역을 강화하고 긴급한 모임과 회의를 제외한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호남대학교에서도 본부 직원이 확진돼 접촉

자 파파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증상이 발현된 뒤에 출근했으며,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일상 깊이 침투하고 있다"며 "외출이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나주 소재 전남외국어고에서도 2학년 학생(광주 2318번)이 확진됐다. 학생 360명, 교직원

60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학생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학교 측은 다음달 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실발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43명이다 이 의원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5명이 늘면서 48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www.kwangshin.ac.kr